

# 코픽스 상승에 대출금리 꿈틀...영끌·빚투족 '한숨'

### 한달만에 0.05%p 반등...중동사태도 악재 은행권 주담대 변동형 상단 6.8%까지 급등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의 반등으로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또 다시 될 전망이다. 시중은행의 5년 주기형 변동금리가 7%대를 넘보는 등 영끌·빚투족의 대출 금리 상승 압력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2월 신

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월(연 2.77%)보다 0.05%p 높은 2.82%로 집계됐다. 지난 1월 다섯 달 만에 상승 행진을 멈추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2.85%에서 변화가 없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

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고,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의 경우다. 구체적으로 신규 취급액 코픽스와 잔액 기준 코픽스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등 수신상품 금리를 바탕으로 산정된다.

앞서 지난 1월 주요 지표금리인 코픽스는 0.120%p 내렸다. 하지만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NH농협은행의 지난 13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250~6.850% 수준으로 지난 1월 16일(연 4.130~6.297%)과 비교해 약 두달 사이 상단이 0.553%p, 하단이 0.120%p 높아졌다. 고정금리의 주요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같은 기간 3.580%에서 3.860%로 0.280%p나 올랐기 때문이다.

은행채 등 시장금리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내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면서 꾸준히 오르다가 연말·연초 다소 진정됐지만, 최근 중동 사태 발발과 함께 다시 상승하는 추세다. 신용대출 금리는 연 3.930~5.340%(1등급·1년 만기 기준)로, 역시 2개월 전보다 하단이 0.180%p 높다. 지표인 은행채 1년물 금리가 같은 기간 0.200%p 된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기준·연 3.850~5.740%)의 상·하단도 같은

기간 각 0.090%p, 0.106%p 상승했다. 시중 은행들은 17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신규코픽스를 지표금리로 삼는 상품의 변동금리는 현재 4.1~5.5%에서 17일 4.15~5.55%로 높아진다. 같은 기준의 전세자금대출 변동금리 역시 3.8~5.2%에서 3.85~5.25%로 인상될 예정이다. [연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mailto:연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전남도는 16일 영암 신해양산업단지캠퍼스에서 '전남 조선기자재산업 미래발전 포럼'을 열고 조선산업의 인공지능 대전환 기술 방향과 산업 전환 전략을 논의했다.

## 전남도, 조선산업 'AI 대전환' 시동

### 대불산단 중심 자율운영 조선소 구축...AX 기반 생산 논의

전남도가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생산혁신 전략 모색에 나섰다. 대불산단을 중심으로 'AI 자율운영 조선소' 구축을 추진하며 조선산업의 생산공정 혁신과 산업 구조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전남도는 16일 영암 신해양산업단지 캠퍼스에서 '전남 조선기자재산업 미래발전 포럼'을 열고 조선산업의 인공지능 대전환(AI·AI Transformation) 기술 방향과 산업 전환 전략을 논의했다. 국립목포대학교가 주관한 이날 포럼에는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 송하철 목포대 총장, 김한규 HD현대상호 부

사장, 유인숙 대불산단경영자협의회장, 김창수 전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이사장 등 조선·기자재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천광산 목포대 교수가 'AI 기반 생산공정 혁신(AX) 기술의 방향성'을 주제로 발표하며 조선산업의 디지털 전환 필요성과 생산공정 혁신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운송 문제 해결 방안, 해외 기능인력 양성사업, 국민성장펀드 등 산업 현안과 정책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조선산업 AX 추진의 핵심 기반이 될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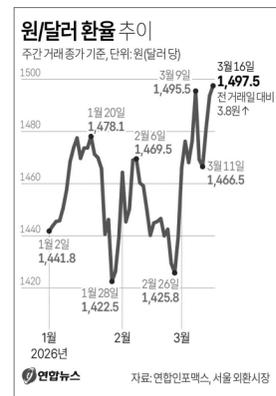
양 생산공정혁신(AX) 지원 기반구축 사업' 유치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전남도는 글로벌 조선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존 인력 중심 생산 구조에서 벗어나 AI 기반 생산공정 혁신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대불산단을 중심으로 'AI 자율운영 조선소'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AI 자율운영 조선소는 강제 입고부터 가공·조립·물류까지 조선 전 공정을 데이터로 연결해 생산 효율을 높이고 공정을 자동화하는 미래형 조선소 모델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AI 자율운영 조선소 구축에 필요한 기술 개발과 실증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선도 사업인 산업

통상자원부 '조선해양 생산공정혁신(AX) 지원 기반구축' 공모사업을 지난 달 25일 신청했다. 전남도는 향후 AI·로봇 기반 생산공정 혁신 기술을 연구·실증하고 검증된 기술을 단계적으로 현장에 적용해 자율운영 조선소 구축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AI 기반 자율공정을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작업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숙련 내국인 중심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인력 구조 전환 효과도 전망된다.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조선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동화와 AI 기반 생산체계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대불산단을 중심으로 AI 자율운영 조선소를 구축해 전남을 대한민국 조선산업 AX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mailto: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원·달러 환율 금융위기 이후 첫 '1500원'

### 코스피 1% 상승

코스피가 16일 1% 상승 마감하고 금융위기 이후 주간거래 중 처음으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3.58p(0.43%) 오른 5510.82로 출발해 62.61p(1.14%) 오른 5549.85로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각각 7161억원, 903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지탱했다. 외국인은 8474억원을 순매도하며 4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이어갔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4.67p(1.27%) 내린 1138.29에 장을 끝냈다. 지수는 전장 대비 3.54p(0.31%) 오른 1156.50으로 시작했으나 보험권에서 등락하다가 하락세로 바뀌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이 7113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991억원, 1716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21억6071억원, 13억3608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후 3시 3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7.3원 오른 1501.0원으로 출발하고 3.8원 오른 1497.5원으로 마감했다. 환율이 주간거래에서 장중 1500원을 넘은 것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2일(장중 고가 1500원) 이후 처음이다. [연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mailto:연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광주은행은 지난 15일 광주지역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융 정보를 제공하는 '외국인을 위한 금융특강'을 실시했다.

## 광주은행, 외국인 근로자 금융특강 '호평'

### 계좌 개설·카드 이용 등 금융서비스 기본 교육

광주은행(은행장 정일선)은 지난 15일 광주지역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금융 정보를 제공하는 '외국인을 위한 금융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광주은행 외국인금융센터(센터장 고훈)와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센터장 신경구)가 공동으로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국내 금융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계좌 개설, 카드 이용, 신용관리 등 기본적인 금융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진행됐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 방법을 비롯해 실제 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내용을 전달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금융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6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참석했으며, 강의 후에는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

을 통해 금융 이용 과정에서 겪었던 불편과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소통의 시간도 마련됐다. 고훈 광주은행 외국인금융센터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교육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은행은 매년 증가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이주민의 금융 편의성 향상을 위해 지난해 2월 광주·전남 금융권 최초로 광산구 흑석동에 외국인금융센터를 개점해 운영하고 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네팔,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5개국 출신 외국인 직원을 추가로 배치해 언어 장벽을 없애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금융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6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참석했으며, 강의 후에는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mailto: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 LH, 공공임대 에너지 효율 높인다

### 중소형 DR 등 에너지신사업 민간위탁 확대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입주민 복지를 강화하고자 '에너지 신사업 민간위탁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에너지 신사업은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에너지 인프라를 활용해 전력 수요관리(DR), 전기차 충전 등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생한 수익을 단지와 입주민에게 환원하는 사업이다. LH는 2022년부터 서울·대전·부산·대구·인천·광주·전남 등 전국 29개 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 에너지 신사업을 위탁 운영해 왔다. LH는 입주민 관리비 절감과 에너지 복지 강화를 위해 오는 6월부터 사업 방식을 개선하고 대상 단지를 확대한다. 전력이 부족하거나 정점일 때 자체 발전기로 전력을 대신 공급해 전력망 부담을 줄이는 '중소형 DR'은 사업 대상 단지

를 기존 13개에서 27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전력 감축량에 따라 정산금을 받을 수 있어 연간 약 7668만원(단지당 약 284만원)의 에너지 절감 수익이 발생한다. 세대 참여형 수요관리 서비스 '국민DR' 참여 단지도 기존 24개에서 51개로 늘리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자동 수요관리 방식을 적용한다. 조명, 에어컨 등 전력이 가릴 때 전력 소비를 자동으로 감축해 에너지를 절감하는 방식으로, 약 39.2%의 추가 전력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단지 내 설치된 전기차 충전 설비를 민간사업자 시스템과 연동해 최적 요금으로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올해 42개 단지를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연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mailto:연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 광주교통공사, 대구지하철 SE 사업 수주

### 광주2호선 수행 경험 바탕...68억 규모 프로젝트 참여

광주교통공사가 광주를 넘어 대구 도시철도 건설 사업까지 참여하며 철도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기술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 공사는 대구교통공사가 발주한 '대구도시철도 4호선 건설사업의 시스템엔지니어링(SE) 용역' 입찰에 참여해 지난 12일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 동구 봉무동을 잇는 총 연장 12.6km 구간과 과거장 12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 기간은 내년 4월부터 2031년 11월까지 약 67개월이며, 계약금액은 약 68억원 규모다. 광주교통공사는 ㈜지이테크놀로지를 대표사로 하는 4개사 컨소시엄에 참여해 시스템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시스템엔지니어링(SE)은 도시철도 건

설 과정에서 설계부터 시운전까지 전 단계에 걸쳐 다양한 철도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관리하고 성능을 통합하며 안전성과 인터페이스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술 영역이다. 주요 과업으로는 RAMS(신뢰성·가용성·유지보수성·안전성) 관리, 전자파 간섭 및 적합성 관리, 소음·진동 관리, 형상 및 소프트웨어 관리 등 시스템 요소 전반에 대한 통합 관리가 포함된다. 문석환 사장은 "이번 대구도시철도 4호선 시스템엔지니어링 사업 수주를 통해 지난 22년간 축적된 도시철도 운영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 역량을 기반으로 관련 사업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3@gwangnam.co.kr](mailto:이승훈 기자 photo23@gwangnam.co.kr)